

사회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남구 빛고을문화관 공연장에서 생후 100일 이내에 미국에 입양한 단원들로 꾸러진 장미무용단이 부채춤 공연을 하고 있다. 장미무용단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의 입양인들로 지난 1984년 구성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생후 100일도 안돼 미국 입양됐던 그들

모국서 부채춤 추며 감동 무대

'장미무용단' 광주 충현원 복원 기념 공연

"우리들의 춤은 바로 나의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남구 빛고을문화관 공연장. 조명이 꺼져 무대가 어두워지자 객석 사이로 킁가에 익숙한 북소리가 들려온다. 이내 불이 켜지자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삼고무(三鼓舞)의 춤사위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채춤과 장구춤, 꼭두각시 공연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날 공연은 광주 충현원과 민족문화보존회가 문을 연지 60년을 맞은 충현원 복원 기념으로 마련됐다. 공연을 선사한 이들은 해외 입양인들로 구성된 장미무용단 단원들. 이들의 몸속에는 한국인들의 피가 흐르지만 생후 100일도 되지 않아 입양된 미국인들이다.
장미무용단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의 입양인들

로 지난 1984년 구성됐다. 이들을 입양한 양부모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배워, 평생 가 숙수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직접 무용단을 결성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르쳤다. 지금은 미네소타주를 돌며 한인들과 자국민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선물하고 있다. 또 한국 입양인들이 미국에서 가정을 이뤄 태어난 자녀까지도 함께하면서 현재는 모두 35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무용단의 대표이자 가장 오래된 단원은 브록 지인 뉴마스터(여·33)씨다. 그녀는 태어난 지 5개월되던 지난 1979년 입양됐다. 그는 "양부모님이 '지인'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다"며 "양부모의 도움으로 한국의 동요와 음식들을 알게 됐고, 전통문화를 하나씩 배웠다"

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무용단 단원들의 양 부모들도 함께 했다. 그들은 자녀들의 공연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고 다른 공연팀이 준비한 공연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보답했다.
그녀는 "충현원이 60년만에 복원됐다 소식 듣고 기뻐했다"며 "단원들 모두가 이번 광주 방문을 앞두고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무척 흥분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예술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한국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희망했다.
충현원 유해량 목사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입양돼 한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 장단과 춤사위를 흥내 내고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한 핏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내 最古 보육원...전쟁고아 등 7천명 거쳐가

■ 광주 충현원은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충현원(忠峴院)'은 국내 현존 보육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이다.
지난 1949년 선교사 로버트 윌슨(Robert M. Wilson)이 사택에서 문을 연 후 40여명의 6·25 한국전쟁 고아를 돌보던 것이 모태가 됐다. 1952년

고(故) 박순이 여사가 현 위치에 충현영아원을 설립하면서 본격 운영됐으며 1957년 충현원으로, 1979년 호남사회봉사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7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설립 이래 전쟁고아 등 모두 7000여명이 이곳을 거쳤다.
충현원은 전체 부지 5000여㎡ 가운데 1920년대에 건립된 과수원 건물 2



지난 30일 문을 연 충현원 체험관.

채와 1950년~1960년대에 건립된 벽돌건물 4채 등 모두 6채로 이뤄져 있다. /연합뉴스

2013고입 자기주도학습 전형
자공고·기숙형 고교까지 확대

전남교육청, 남악고 등 9곳

2013학년도 전남지역 고교 입학에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기존 특목고에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와 기숙형 고교로 확대된다.
이 전형은 필기시험을 배제하고 내신과 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면접을 거쳐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중 3이 대상인 내년 고교전형에서 자공고인 남악·나주고는 전체 학생정원 가운데 30여명(1개반)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뽑는다.
기숙형 고교이자 비평준화 학교인

능주·해룡·진도·해남·장흥·곡성고, 여수 화양고도 같은 방식을 택할 방침이다. 나머지 학생은 지원자 가운데 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이들 학교의 최종 선발방식은 이달 중순에 확정된다.
기존 전남외국어·전남과학·광양제철고(자립형 사립고)는 지난해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 전원을 채운다.
나머지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신입생 선발은 현행 배정방법을 유지한다. 1단계에서 정원의 50%, 2단계 30%, 3단계 정원의 20% 등을 추천·배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답답했던 사건문의 인터넷으로"

경찰청 오늘부터 운영...전화 문의도 가능

경찰청은 국가 수사기관 최초로 인터넷 사건문의 시스템을 구축해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언제든 인터넷으로 사건 진행결과를 문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건 관계인들은 자신의 사건이라도 직접 경찰에 문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는 경찰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과의 부적절한 관

계나 부당한 사건청탁 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에 접속해 '내 사건 문의' 코너를 클릭하면 글을 쓰고 담당 수사팀장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국민에게는 수사팀장이 직접 상담을 하거나 전화 문의가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알려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156개 민원·행정문서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쓴다

앞으로 각종 행정·민원문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했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와 같은 156종의 행정서식에 생년월일을 대신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4월에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43개가 개정한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또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1197종의 행정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넣어 민원이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뀐 서식에는 처리 절차뿐 아니라 민원 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된다.
아울러 다소 복잡했던 기재항목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3851종의 민원서식 디자인도 바꿨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대지 적시는 비
밤부터 주무룩 주무룩 봄비가 내리겠다.
광주: 구름조금 4/10°C
목포: 구름조금 5/10°C
여수: 구름조금 6/10°C
나주: 구름조금 2/10°C
완도: 구름조금 5/10°C
구례: 구름조금 2/10°C
강진: 구름조금 3/10°C
해남: 구름조금 2/10°C
장흥: 구름조금 2/10°C
순천: 구름조금 3/10°C
영광: 구름조금 2/10°C
진도: 구름조금 3/10°C
전주: 구름조금 6/6°C
군산: 구름조금 2/17°C
남원: 구름조금 0/7°C
흑산도: 구름조금 7/10°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주간날씨
날짜, 날씨, 최저/최고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오늘 밤늦게 비...남해상 돌풍

2일 광주·전남 지역에 밤늦게 비가 내리겠다고 광주지방기상청이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17도가 되겠다.
비는 2일 오후에 서해안 지방부터 시작돼(강수확률 60~90%) 밤늦게 전국으로 확대된 뒤 3일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부터 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부터 3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시설물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2일 오전에 서해안바

다에서 2.0~3.0m, 그 밖의 해상은 1.0~2.5m로 일다가 오후에 전해상으로 2.0~4.0m로 점차 높아진다.
특히 남해상에는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주(2~7일) 기온은 평년(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최고기온: 영상13~19도)보다 낮겠다. 강수량은 평년(강수량: 1~5mm)보다 많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행락철 버스내 음주가무 집중 단속

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단체 이동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내 음주가무를 비롯한 소란행위 집중 단속 등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2주간 각급 학교, 산악회, 전세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홍보한 뒤 15일부터 5월 말까지 6주간 안전띠 미착용·차내 소란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

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휴게소 등지에서 노래방기기 설치와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도 동시에 단속한다.
경찰은 학교나 산악회 등에서 여행 출발 전 버스 운전자의 음주여부 점검이나 안전 교육을 원하는 경우 경찰서로 연락하면 협조할 것이라며 차량 내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 자체와 안전띠 착용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www.yjcdribe.co.kr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아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 2종 소형 (오토바이)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